

## 펄프종이기술이 만난 제지인

# 전통 위에 혁신을 더해, 지속가능한 미래로

## 최 현 수 회장

「펄프·종이기술」은 한국제지연합회를 이끌며, 대변혁기를 맞고 있는 우리 펄프·제지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최현수 회장을 만났다. 최 회장은 3대째 제지업을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는 기업인으로, 제지산업의 전통 위에 혁신을 더해 보다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변화,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원사들이 더 큰 목표와 방향 아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품격있는 변화로 제지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그는 AI 시대를 맞아 제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산학협력 기반의 현장 연구, 융복합 연구, 그리고 인재 양성에 학계와 학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펄프종이기술:** 회장님으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소감을 여쭙기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학회회원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은 변화와 혁신에 있습니다.  
제지연합회가 그 전환의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현수:** 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제지연합회 회장 최현수입니다.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만, 다시 한 번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지연합회 이사회에서 합의로 추대해 주셨지만, 대내외 환경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시기여서, 많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대째 ‘제지’를 가업으로 잇고 있는 경영인으로서의 책임감, 업계에서 제게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 재삼재사 고심한 끝에, 시대정신은 변화와 혁신



신에 있고, 제지연합회가 그 역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수락했습니다.

취임 당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제지산업이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이었습니다. 글로벌 통상 질서의 재편, 에너지 비용 구조 변화, 환경/탄소 규제 강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까지 산업을 둘러싼 모든 조건이 동시에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 차원의 방향 설정과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연합회가 단순한 친목 협의체를 넘어, 산업의 전략을 설계하고 정책과 기술을 연계하는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책임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펠프종이기술:** 제지연합회의 로고도 새롭게 마련하셨던데요.

**최현수:** 네, 기존에 사용하던 로고는 1960년대에 제지사업장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디지털 기기에서 최초로 색상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하여 유사 색상을 차용하고 있었고, 로고와 폰트의 조합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사용되던 일부 폰트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여,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개선안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임직원 등 236명이 참여한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디자인이 새로운 로고로 채택되었습니다.

새로운 로고는 종이의 곡선에 담긴 자연의 순환과 K제지의 ‘K’에 종이 가 가진 곡선 모티브를 넣어 제지협회의 유연함과 지속가능한 가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제지연합회도 새로운 미래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펠프종이기술:** 제지연합회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소개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업무 조직과 인적 구성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정책환경 개선, 산업이미지 제고, 경영환경 개선 지원 등 업계 발전을 위해 소수정예 인력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현수:** 제지연합회는 1952년 ‘한국제지공업연합회’로 출범한 이후, 제지·펠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사의 공동 이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현재도 연합회의 핵심 역할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 정책 대응력 제고: 국회 포럼 개최, 대외협력 사업 강화, 정부지원 사업 적극 참여를 통해 제지산업의 입법·정책 환경을 개선합니다. 환경·통상·에너지 관련 규제 변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입법부 및 행정부와의 상시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겠습니다.

② 산업 이미지 및 가치 제고: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제지산업이 ‘오래된 제조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미래형 친환경 산업’으로 재인식되도록 적극 홍보합니다. 대중과 젊은 세대에게 제지·펠프가 플라스틱 대체 소재 산업임을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경영환경 개선 지원: DX(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회원사의 실질적인 경영 여건을 개선합니다. AI·데이터 기반 공정 혁신의 산업 차원 확산도 이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연합회의 새로운 CI(상)와 기존에 사용되었던 CI(하)

④ 온실가스 감축·환경 규제 대응: 탄소중립 로드맵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체계화하고, EU 공급망 규제 등 글로벌 환경 기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한편 우리 산업은 과거 세계 5위 수준까지 도약했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 과잉, 비용 구조 악화, 규제 강화 등 복합 요인으로 경쟁력이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이 자원 재활용률은 세계 2위 수준으로 순환경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기반으로 국가 산업 차원의 전환 전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경쟁력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연합회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직은 현재 기획관리실과 환경에너지실의 2실 체제로 운영됩니다. 인력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능은 ‘작게 운영하되 강하게 실행’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핵심은 위원회 기반 운영입니다. 회원사 실무와 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활성화해 정책 대응, 환경·에너지, DX, 안전 등 주요 의제를 빠르게 논의하고 실행 과제로 연결합니다. 또한 외부 전문인력, 기관 협업을 통해 사무국의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펠프종이기술:** 제지연합회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는다는 것은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다는 뜻일텐데...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최현수:** 두 역할을 별개가 아닌, ‘제지산업의 성장과 발전’

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경영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문제의식을 연합회 정책에 반영하고, 반대로 연합회 활동을 통해 산업 전반의 거시적 통찰을 경영에 투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합니다.

**펠프종이기술:** 지난 신년인사회를 통해 제지연합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작은 부분부터 산업 전반의 큰 방향에 이르기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았는데요.

**“미래형 친환경 융복합 산업으로서 품격을 갖춘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고자 합니다.”**

**최현수:** 변화를 제감해 주셨다니 다행입니다. 우리 제지산업은 12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지만, 대중과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오래된’ 산업이라는 편견이 넓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지연합회가 앞장서서 ‘전통 제조업’이라는 정체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미래형 친환경 융복합 산업’으로의 도약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신년인사회는 그저 변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소통 방식, 대외협력, 산업 이미지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산업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을 갖추면서도,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것이 저의 다짐입니다.



**펠프종이기술:** 특히 입법부의 여러분의 화상인사를 보고 회장님이 아니시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게 되셨는지요?

**최현수:** 새로운 변화로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영상들은 단순히 행사의 격을 높이기 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제지산업의 가치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입법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중장기 소통 전략의 첫 걸음입니다. 환경·통상·에너지 관련 제도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와의 소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 대국회 및 대정부 소통을 연합회의 핵심 상시사업이 되도록 더욱 제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펠프종이기술:** 각사 대표님들께서 보내는 화상인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년 인사는 거의 같은 내용일거라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각각 다르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건네는 것이 흥미를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사 대표님들이 한 자리에서 정담을 나누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회원사간의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지요.



**최현수:**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 인사는 형식적으로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 대표님들께 단순한 축사가 아니라, 각자의 고민과 비전, 업계를 향한 제언을 자유롭게 담아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 다양성이 우리 산업의 저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기보다는, 이제는 ‘개별 기업의 생존’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시적인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분과위원 활동 및 솔직하고도 잦은 소통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산업 전반의 가치를 높이는 데 뜻을 모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연대의 시작입니다.

**펠프종이기술:** 동종업계의 수장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서로 경쟁관계 혹은 협력관계에 있는 분들을 잘 조율해야만 하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갖고 계신 성공을 위한 비결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젠 경쟁사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향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최현수:** 회원사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저는 이를 ‘경쟁’의 프레임이 아닌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제지산업의 미래라는 큰 틀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전략적 파트너’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조율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협력 협업의 시대가 온 것이지요. 실질적인 결집의 구심점은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4대 핵심 과제입니다. 이 과제들은 업계가 ‘K-PAPER’라는 하나의 팀으로 대응할 때 비로소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할 수 있고,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 **AI·데이터 기반 공정 효율 극대화**  
제조 공정 전반에 AI와 빅데이터를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 **친환경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플라스틱을 대체할 바이오 기반 소재 개발로 글로벌 친환경 시장을 선도합니다.

• **세계적 수준의 순환경제 인프라 구축**

자원 순환율을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공급망을 완성합니다.

• **안전 경영 문화 정착**

중대재해 예방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한 제조 현장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성공적인 조율은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공학회 회원 여러분의 학문적 성취가 우리 업계의 긴밀한 연대와 만나 산업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제지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필프종이기술:** 평소에 제지산업계에도 AI가 큰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기에 잘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하여 갖고 계신 구상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지요.

**“스마트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활용 기반 구축과 공동연구체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최현수:** 현재 우리 산업은 원재료와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심화, 글로벌 공급망 규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 설비를 조금 더 효율화하는 수준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공정 자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품질 예측, 설비 이상 감지, 에너지 최적화, 수요 예측, 재고 관리 등 전 공정에 걸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산업 구조의 체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난해 저는 회원사 대표들을 깨끗한나라 사업장으로 초청해 AI 기반 설비 운영과 시스템 적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미 시작된 변화를 함께 보고 논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일부 관계자들께서는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제지업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피드백이 산업 차원의 확산 필요성을 더욱 확신하게 했습니다. 정부 역시 ‘M.AX 얼라이언스 기반 제조업 AI 전환(AX)’을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보급과 산업 전반의 AI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전략 속에서 제지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에너지·설비·공정 데이터를 대량으로 축적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를 체계화하고 공동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선도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별 기업의 도입을 넘어 산업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산학협력을 통한 알고리즘 고도화, 데이터 표준화, 실증 기반 공동 연구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펄프종이공학회가 중심이 되어 교수진과 연구진이 AI·소재·에너지 분야를 융복합적으로 연결해 주신다면 산업 전환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AI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우리 제지산업이 다음 30년을 준비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펄프종이기술:** 제지연합회가 펄프종이공학회를 위해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회에서 제지업계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와 학계가 현장직결연구, 융복합연구, 인재배출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최현수:** 학회 회원 분들이 쌓아 오신 학문적 토대는 제지산업이 거친 파고를 넘을 수 있게 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

목입니다. 저는 산업계와 학계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특히 3가지 관점에서 학계의 통찰력을 더 해 주신다면 산업 전반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첫째, 산업 현장 직결 연구의 확대입니다. 기초 학문도 중요하지만, 대전환의 기로에 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응용 연구도 절실합니다. AI 기반 제조 혁신, 플라스틱 대체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등 거시적 과제에 학계의 통찰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융복합 연구 문화의 정착입니다. 제지·펄프 공학이 AI, 빅데이터, 환경·바이오 기술과 융합할 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됩니다. 교수님들이 전공 간 경계를 낮추고 학제간·산학 간 협력을 주도해 주신다면, 공학회 자체가 혁신 기술의 발신지가 될 것입니다.

셋째, 우수 인재의 지속적 배출입니다. 우리 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학문적 토대 위에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계는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체계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학계와 산업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연합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펄프종이기술:** 회장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최현수:** 우리는 지금 ‘전통 제조업’의 틀에서 벗어나, 융복합 첨단 소재 산업으로 재탄생해야 하는 백년대계의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이제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제지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제지연합회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담대한 여정에 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제지인 여러분께서 하나

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펄프종이기술:**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제지연합회가 더욱 큰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와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제지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답:** 펄프종이기술 편집위원장 이학래